



순창군이 그동안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만 지원해왔던 경로당지원금을 앞으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도 지원키로 했다.

경로당 없는 마을 간식비 지원

순창군, 11개소에 1220만원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순창군이 그동안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만 지원해왔던 경로당지원금을 앞으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도 지원키로 했다.

순창군은 그동안 관내 총 370개소만 지원해왔던 경로당 지원금을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 총 11개소에 총 1,220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군은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 지원금을 받지 못한 마을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

렸다고 밝혔다.

단, 운영비와 난방비는 경로당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해 이를 제외한 간식비만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현재 등록된 노인 인구 수를 기준으로 우선 마을이장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원된 간식비는 마을이장이 구입하여 적절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간식을 급식토록 하게 된다.

간식비 지원시기는 마을경로당 지원 시기에 맞춰 매 분기에 지급하게 되

며, 10인미만 5개소에는 4백만원, 20인미만 4개소에 480만원, 30인미만과 50인 이상 마을에는 각각 14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순창군은 노인인구 10인미만 마을은 5개소이며, 10인이상 마을은 6개소로 총 11개소에 마을 경로당이 없는 상태다.

본격시행시기는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과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곧바로 시행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AI 확산 방지 위해 동림저수지 출입통제

고창군, 주요 출입구 초소 운영·일반인 퇴거 등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동림저수지 주요 출입구 초소 운영, 순찰을 통한 일반인 퇴거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가창요지 등 철새의 대규모 도래를 대비해 출입통제초소를 확대 운

영해 동림저수지를 전면 통제한다고 21일 전했다.

이를 위해 동림저수지 철새도래지 주 진입로에 대해 외부인과 차량통행을 통제한다.

군 관계자는 순찰 강화 등을 통한 출입 통제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낚시

탐방객들이 늘어나는 등 넓은 면적의 철새 도래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주민과 탐방객들이 왕래를 자제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출입통제구역 인구를 오가는 경우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고창군청 환경위생과(063-560-2875)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나선화 문화재청장, 남원시 주요 역사유적지 방문

보수정비·복원방안 등 점검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21일 역사문화 유적과 국악을 비롯한 전통문화예술 도시인 남원시 주요 역사유적지를 방문, 보존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보수정비, 복원방안 등에 대하여 점검했다.



남원시에서는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7년 총20건에 4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2017년도에 3건의 공모사업(전통사문화재 활용사업,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활용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1억4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나선화 문화재청장 방문을 통해 남원시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의회, 정례회 폐회

임실군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11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심

의·의결했다.

또한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군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목적성에 입각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개선을 요구했으며, 오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4억2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

에 편성하는 등 총 3천302억 2천895만 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억6천만원을 삭감 처리했으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문영두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장려상 수상

홍보·도시민 귀농인학교 운영 등 노력 '결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규연)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추진실적 분야에서 전국단위 장려상을 수상함으로써 순창군을 귀농귀촌메카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군은 2007년부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12년도 9월에 귀농귀촌 전담반을 구성한후 2013년에는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금년에는 예비 귀농인 전문교육 및 귀농인 교육을 22회에 510명을 실시하는 등 귀농귀촌 사업을 순창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바 올해에는 1,000여명의 귀농귀촌인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찾아가는 수도권 귀농귀촌 홍보 및 도시민 귀농인학교 운영,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지역화합 행사, 재능기부사업 등으로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1년여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임시거주지로 농협참고물

개조한 청년전용 셰어하우스 4동, 임시거주지 17동 금년 12월에는 체재형가족실습농장 10동까지 마련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주요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되는 이사비 100만원, 집들이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주택신축 및 수리비를 사업비의 70% 최대 500만원, 귀농인에게는 소득사업비로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용자사업도 주택신축비 5,000만원, 귀농인 창업지원 3억 원까지 지원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직계2인이상이 전입후 5년 이내 귀농귀촌인 정착금을 읍면에 신청하면 관련 근거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에도 임시 거주지 9동 예산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며 청년 귀농인을 위한 국비확보로 청년 농업인 창업에 필요한 교육이 수자에게 5백만원 지원과 코칭자문, 컨설팅으로 우수한 청년 귀농인에게 6백만원 지원등 청년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실수 없는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국가안전대진단 우수기관 선정

안전저해 요소 사전 보수·보강

임실군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의 원천적 안전저해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

가에서 군은 군민의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현장관찰단을 운영하고 재난예방 민간에활동단을 민·관합동 점검에 참여시키는 한편,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한 군수는 "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말고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시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영양왕' 선발

정읍시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에게 지난 1년 동안 실시한 영양교육 및 영양지식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일 '영양왕' 선발을 실시하였다.

이날 선발대회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련된 퀴즈를 풀며 중간 중간 넌센스 퀴즈로 유쾌하고 흥미롭게 진행되어 대상자들 간에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올해의 영양왕으로는 수성동 임신부가 선발되었고, 우수자로는 초산동 유아, 수성동 모유수유부등 2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독감 예

방을 위하여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식품 및 음식 알아보기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평생 건강기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중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모집해 월1회 영양교육 및 월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연중 보건소 영양플러스실(☎063-539-6106.6087)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립경찰

고창경찰, 절도예방 요령 설명

고창경찰서(총경 박현수) 부안파출소에서는 21일 오전 부안면 상오마을 회관을 찾아가 방커리 안전 등 교통사고 예방 및 절도예방 요령을 설명하는 등 주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히 일몰 시간이 빨라지는 시기 방커리 안전 등 겨울철 도로위를 보행하는 외부 운동보다는 실내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외출 시 밝은 옷 입기, 보행 3원칙인 '서다, 보다, 걷다' 안전 보행방법 설명 및 절도 예방을 위하여 장거리 여행시 사전예약순찰제 적극 활용, 집을 비울 시 반드시 시정하기, 사례 중심 절도형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명희 소장은 "농한기로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있는 시간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맞춤형 치안활동을 펴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4-H연합회, 밥퍼 봉사활동

임실군4-H연합회(회장 고주석) 회원들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밥퍼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친목도모와 점문을 넓히기 위해 최근 필리핀을 방문한 회원 8명은 밥 굶는 사람이 없길 기원하며 시작된 음식나눔 활동 '밥퍼 봉사활동'에 참여해 마닐라에서 밥퍼와 빈민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다일공공체의 협조로 굶주림에 힘겨워 하는 아이들에게 밥과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회원은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 무더위를 뚫고 1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한편, 4-H연합회는 지·덕·노·체의 이념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사회를 이끌 젊은 영농인 모임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각종 교육 및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환경·생명운동의 주축이 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지하주차장 방범 진단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치안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이용이 많은 대형마트와 아파트지하주차장에 대한 방범진단을 실시했다.

인재업 생활안전계장, 범죄예방진단팀(CPO) 등은 직접 현장에 진출 세밀한 진단을 실시했다. 그간 방범홍보 활동과 시설주 자위방법 노력등으로 CCTV 설치와 관심도는 높아져 있지만 노후된 CCTV는 화소가 떨어지는 상태를 보이고 있어 향후 화질개선을 권고 하였다.

경찰은 관내 전체 주차장에 대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장소가 우수한 곳을 선정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패를 부착해 나가며 민경협력 방범체계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일섭 서장은 "경찰의 전 기능은 물론 협력단체와 함께 협력·총력대응으로 안전한 순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